

‘슈팅 정확도 100%’ 손흥민… 날카로움 되찾은 득점왕

FA컵서 108일 만에 멀티골 ‘올 시즌 8골 3도움’
슈팅 4개 모두 유효슛 연결… 패스정확도 95.7%
다음달 6일 맨시티와 홈 경기서 연속골 도전

“손흥민이 지난 시즌 자신이 득점왕에 오른 이유를 팬들에게 증명했다.”

올 시즌 골 가뭄에 시달려온 손흥민(31·토트넘)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딥데일 경기장에서 열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2부리그)와의 FA컵 32강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85분까지 뛰며 두 골로 토트넘의 3-0 완승을 견인했다.

올 시즌 공식전 7, 8호골로 지난 5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PL 19라운드 이후 5경기 만에 득점이자, 도움 1개를 올린 지난 24일 풀럼과의 21라운드에 이어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다.

한 경기 멀티 득점은 지난해 10월 13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 이후 108일 만이다.

손흥민은 이날 두 골을 추가해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총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으로 인한 뻣뻣한 일정과 안와골절상으로 무뎠던 손흥민의 발끝이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아스널을 상대로 유효슈팅 1개에 그쳤던 손흥민은 이날 4개의 슈팅을 모두 상대 골문 안으로 성공시키며 슈팅 정확도 100%를 자랑했다.

또 이 중 2개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모처럼 멀티골로 필립 날았다.

슈팅뿐만이 아니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 내 최다인 2차례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고, 패스 정확도도 무려 95.7%에 달했다. 이 역시 팀 내 2위다.

상대가 2부리그에서도 중위권인 팀이지만, 원정인 데다 챔피언스리그 소속 팀들의 거친 몸싸움과 견제를 고려할 때 손흥민의 활약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최다인 평점 9.07점을 부여했다. 손흥민을 제

외하면 평점 8점을 넘는 선수는 없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대신 기자회견에 나온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는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라며 “(해리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 득점을 만들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기뻐했다.

한지 전문가들도 손흥민이 지난 시즌 득점왕의 모습을 찾았다고 칭찬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이자 패널로 활동 중인 앨런 시어러는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토트넘 선배인 저메인 제나스는 “손흥민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BBC도 “손흥민이 상대와의 수준 차이를 증명했다”며 “후반이 시작하고 자신이 왜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올랐는지 팬들에게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손흥민도 이날 멀티골로 자신감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후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런 골들이 중요하다”며 “공격수에게 득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는 2월 6일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맨체스터 시티와의 정규리그 경기다.

FA컵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했지만, 한 주일 가량 실 시간은 충분하다.

토트넘은 지난 20일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선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딥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경기 후반 5분 선제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손흥민은 멀티 골(시즌 7-8호)을 기록하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발로 나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지만, 유효 슈팅을 1개 기록하는 데 그치며 토트넘의 2-4 역전패를 바라봐야만 했다.

이후 공격 포인트 2개(1골 1도움)를 추가하

며 경기력을 회복한 손흥민에게 당시 패배를 설욕할 기회다. 맨시티전에서 또 골 맛을 본다면, 후반기 골 폭풍을 몰아칠 수 있다.

뉴시스



안세영(2위)이 2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왕즈이(7위·중국)를 물리친 후 환호하고 있다. 지난 22일 인도 오픈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세트 스코어 2-1(21-9 10-21 21-16)로 왕즈이를 꺾고 결승에 올라 캐롤리나 마린(9위·스페인)과 맞붙어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안세영, 2주 연속 우승…리우올림픽 숲 마린 꺾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21)이 2주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2위 안세영은 29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9위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을 2-1(18-21 21-18 21-13)로 꺾고 우승했다.

1개임을 내준 안세영은 2개임을 잡아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3게임에서 막판 주도권을 잡은 안세영은 마린을 압도하며 승리했다.

뉴시스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한 안세영은 테이핑을 한 채로 뛰고도 우승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마린과 상대 전적을 4승4패로 만들어 균형을 맞췄다. 마린은 2016년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다.

아울러 안세영은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안세영은 지난 22일 인도오픈에서 세계 1위 아마구치를 물리치고 우승한 바 있다.

오현규, 교체로 셀틱 데뷔전…크로스 인상적

겨울 이적시장에서 스코틀랜드 무대에 진출한 오현규(22)가 셀틱 유니폼을 입고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적극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셀틱은 30일(한국시간) 영국 던디의 테너디이스 파크에서 열린 던디 유나이티드와의 2022-2023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3라운드에서 2-0으로 승리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예비 선수로 벤투호에 합류했던 오현규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깜짝 소식을 전한 주인공이다. 셀틱은 지난 25일 수원 삼성에서 뛰던 오현규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매단고 재학 중이던 2019년 수원과 준프로 계약을 한 오현규는 같은 해 K리그에 데뷔해 11경기에 출전했다. 2020-2021시즌 상무에서 군 복무를 해 병역 문제를 해결한 오현규는 전역 후 수원으로 돌아와 주전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K리그1 36경기에서 팀 내 최다인 13골(3도움)을 터트렸다. 특히 FC안양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결승골로 수원의 1부리



그 잔류에 앞장섰다. 이날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린 오현규는 2-0으로 앞선 후반 37분 후루하시 교고를 대신해 투입됐다.

최전방에 배치된 오현규는 적극적인 움직임과 몸싸움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혔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마에다의 득점 기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 않아 도움에 실패했지만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받은 만한 공격가담이었다.

여자농구 우리은행 김단비, 4라운드 MVP…이번 시즌 3번째



김단비의 시즌이다. 여자프로농구 2022-2023시즌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의 영광도 김단비(우리은행)에게 돌아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신한은행 SOL 2022-2023시즌 여자프로농구 4라운드 MVP로 김단비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기자단 투표 86표 중 72표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키움 신인 3인방, 설레는 스프링캠프 “1군 목표”

투수 김건희·포수 김동현·외야수 송재선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키움 히어로즈에 1라운드에 지명된 투수 김건희(19)와 포수 김동현(19), 외야수 송재선(23)이 1군 엔트리 진입을 위해 장도에 올랐다.

키움은 미국과 대만에서 스프링캠프를 열기 위해 지난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키움은 훈련 유형과 설정한 목표 방향에 따라 참가 선수를 구성했다. 흥원기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 및 코칭스태프 40명이 미국으로 떠났다.

신인 선수 중에는 김건희와 김동현, 송재선이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흥원기 키움 감독은 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세 선수는 프로에 와서 처음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설렘이 가득했다. 빨리 팀에 적응하고 실력을 향상시켜 KBO리그에 데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는 “소중할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캠프에서 배우게 되는데 프로에서 잘 보완해서 1군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현은 “야구를 시작할 때부터 KBO리그 1군에서 뛰는 게 목표였다. 이제 첫걸음을 떼다. 스프링캠프에 가게 돼서 영광이다. 팀 안에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송재선은 “키움에 지명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같이 무언가가 이뤄지고 있다. 스프링캠프에 불러주신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다.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런 만큼 많은 걸 보고 배우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흥원기 감독의 스프링캠프 화두는 무한 경쟁이다. 이정후, 김혜성, 에디슨 러셀 등 확실한 주전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투수, 야수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 이름값보다 실력이 검증된 선수만 1

기자단 투표 86표 중 72표

김단비의 시즌이다. 여자프로농구 2022-2023시즌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의 영광도 김단비(우리은행)에게 돌아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신한은행 SOL 2022-2023시즌 여자프로농구 4라운드 MVP로 김단비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기자단 투표 86표 중 72표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FA)을 통해 새롭게 아산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은 김단

비는 1-2라운드에 이어 3번째 MVP 수상으로 정규리그 MVP 수상 가능성도 더욱 높였다.

김단비는 4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36분 47초를 뛰며 21.4점 10.8리바운드 6.6어시스트 1.8스틸 2.0블록슛으로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공헌도 역시 전체 1위. 우리은행은 김단비를 앞세워 4라운드에서 4승1패를 올렸다.

한편, 기량발전상(MIP)은 신이슬(삼성생명)이 수상했다.

뉴시스



왼쪽부터 김동현, 김건희, 송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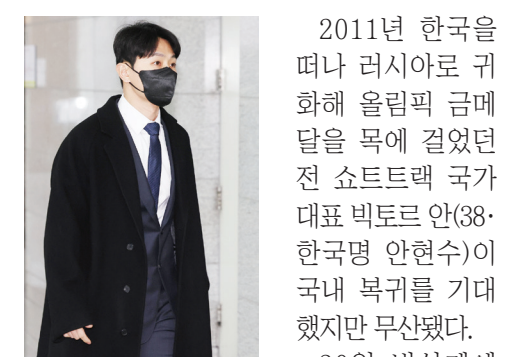
군에 올리겠다고 천명했다.

김건희는 ‘투타겸업’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를 롤모델로 꼽았다. 오타니를 ‘우상’이라고 한 김건희는 “오타니 선수의 철저한 몸 관리를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한 경기 뛰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의 롤모델은 팀 선배 이지영이다. 김동현은 “포수를 시작할 때부터 이지영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시작했다. 그런 선배님이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그 팀의 포수로 입단하게 돼서 큰 영광이다. 이지영 선배님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여쭙고 싶다. 선배님의 좋은 면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송재선은 빨리 외야의 한 축을 맡고 싶다고 했다. 송재선은 “빠른 시일 안에 그 자리(외야수)에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대수비, 대주자 등 팀이 필요할 때 출전했으면 한다. 항상 유니폼이 가장 더러운 선수가 되겠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여 꿈을 키우는 어린 선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빅토르 안’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성남시청 코치 탈락



2011년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귀화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38·한국명 안현수)이 국내 복귀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30일 빙상계에 따르면, 빅토르 안은 경기도 성남시청 직장운 동부 빙상팀 코치에 지원했지만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빙상팀 코치 선발을 위한 공고를 냈고, 빅토르 안을 비롯해 총 7명이 지원서를 냈다. 지난 12일 면접이 있었다.

빅토르 안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였다.

2011년 소속팀 성남시청이 해체되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결심과 함께 러시아로 귀화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소속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 은퇴 무대로 삼으려 했던 2018 평창 올림픽에선 러시아의 선수단 도핑 스캔들에 휘말려 출전이 불발됐다.

지도자로 변신한 안현수는 2020년 중국 대표팀 기술 코치를 맡아 중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메달 4개(금 2, 은 1, 동 1)를 따는 데 힘을 보탰다.

앞서 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 안의 코치직 지원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서를 내고 “빅토르 안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을 당시 미국 논란이 일자 ‘이중국적이 가능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가 귀화 직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며 “이중국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뒤 몰랐던 척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